

독일의 Input 중심 조기외국어교육: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초등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김 양 실
(성신여자대학교)

Kim, Yang-Shil. (2002). Input-Oriented Early Language Education In Germany. *Foreign Langage Education Research*, 5, 39-55.

Early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Germany means language learning in primary school. The languages taught there are English or French.

At this early age of six years foreign language learning is oriented on the acquisition of the native language. The knowledge of the structure of the foreign language supports the development of the native language and vice versa.

Foreign language learning should therefore be comparable to the native language learning, i.e. it should be based on situation, topic, action and experience. Instruction should rely on the natural succession of the learning phases: frequent and intensive listening should precede imitative and dialogical speaking.

That is what input-orient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does in Germany in early childhood teaching.

1. 변화

독일은 통일과 더불어 유럽 공동체라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가운데, 외국어교육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언어를 각자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유럽적 사고와 생활방식이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새로운 단일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그 내수시장의 원동력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해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공존하는 유럽의 특성에 하루빨리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외국어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외국어교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외국어습득능력이나 교육은 독일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모습의 다국적 유럽 속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더 나아가 독일 내외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핵심요소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환경은 외국어습득 능력을 특정한 나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외국어능력이 개인의 주요능력일 뿐 아니라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본인이 원하는 외국어를, 학교에서 체험한 외국어교육의 방법론과 경험을 근거로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습득의 필요성이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민한 언어적 감각을 필요로 하는 외국어교육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는 공감대를 시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독일의 초등 외국어교육의 도입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수업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학습함으로써 그들의 시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이자, 동시에 새로운 유럽에 대한 진취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외국어교육의 필요성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만 10세 때 (중등교육과정의 시작인 5학년부터)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몇 년 전부터는 개별적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생겨났다. 그 당시에는 이때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을 조기외국어교육이라 일컬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일교육에서 언급되어지는 외국어 조기교육이란 만 6세 때 이루어지는,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심지어 유치원부터의 외국어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¹⁾. 이것은 독일사회가 조기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 6세 어린이들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대한 이론적인, 실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같은 이유로 독일의 이웃나라에서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미 오래 전부터 6-7세 때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외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의 상호관계성이다²⁾. 만 6세의 어린이들에게는 아직 모국어를 습득했을 때의 메카니즘이 몸에 배어있으며 그것이 외국어를 습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신체적인 혹은 생리적인 전제조건으로는 그 연령대의 어린이들의 1. 쉬운 동기유발, 2. 우수한 기억력, 3. 모방하기, 노래 부르기, 놀이, 신체 표현의 선호, 4. 즉흥성, 5. 언어에 대한 큰 호기심이나 언어에 대한 두려움 등이 없음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기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차원, 즉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사회적 통합의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외국어 습득에 대한 경험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미 하였으며 각국에서는 서로 이에 대한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려했던 바와는 정 반대로 외국인 학생들은 제 3 언어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1) Vgl. Lehrplan: Fremdsprachen in der Grundschule, S. 9.

2) Vgl. Lehrplan, S. 10.

보여 진다³⁾:

첫째로, 외국인 학생들은 모국어 외에 이미 다른 외국어를 습득하였거나 습득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남다른 언어습득능력의 보유자이다. 이 언어습득능력은 모국어 습득시의 언어능력과 외국어를 습득하면서 경험하게 언어능력과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내지 비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조건은 외국인 학생들이 제3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제 1 외국어 습득은 그 외 다른 외국어 습득도 더불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독일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전 과목은 모두 독일어로 진행되며 이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초등외국어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독일인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독일어가 완벽하지 않고 낯선 외국어로 (독일어) 수업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동기유발이 되어질 수 있다. 이들은 이를 계기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학교생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Bleyhl의 Input 중심 초등외국어교육론

초등외국어교육의 이론가이자 BW주의 초등외국어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Werner Bleyhl 교수는⁴⁾ 외국어습득을 “생물-심리-사회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며 이에 따라 학습자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격체로 인식할 것을 당부한다. 즉 언어습득은 선천적인 요소, 학습자의 인지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 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전개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외국어교육 시 될 수 있는 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학습/수용채널을 가동시킬 것을 당부하

3) Vgl. Lehrplan, S. 12.

4) Werner Bleyhl 교수는 Ludwigsburg 교육대학의 교수로서 그의 핵심 연구영역은 교수법과 학습법의 대안적 방법론, 언어습득, 외국어습득의 방법론과 교수법 등이며 BW 주의 초등외국어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과과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는 이유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린 학습자들의 욕구, 즉 그들의 감성, 창의성, 율동/운동욕구, 리듬감, 음악성, 그리고 놀이에 대한 욕구 (유머성)⁵⁾,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학습방법을 추구해야 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Bleyhl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질 수 있다⁶⁾:

1. 언어습득은 (모국어, 외국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Bleyhl에 따르면 언어습득은 그것이 모국어가 됐건 외국어가 되었건 간에 단계적으로 직선을 그리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여러 요소가 복합적, 동시적으로 언어습득자에게 작용하며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다. 학습자는 언어적 현상을 그의 감각, 감성, 시각, 청각, 촉각 등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받아들이며 처리한다. 어떠한 언어현상이 되었건 간에 그것은 일단 학습자의 언어체계 내에 이미 존재하는 그와 비슷한 부류와 유형이 비교/확인되는 절차를 거치며 인식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직선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이 아닌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과정 속에서 이미 본인의 경험 하에 놓인 익숙한 것들과 새롭게 습득되어진 것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언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외국어교육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교수법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까지 이루어졌던 형식위주의 (문법강조 외국어교육) 외국어교육은 학습대상을 전체에서 분리하여 학습자들에게 강요함으로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을 저해하는 과정이었다⁷⁾. 모국어습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어습득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정서와 지적욕구, 학습자의 종합적인 모습이 고려되어질 것은 물론이고 학습대상인 외국어 역시 어떠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전체에서 분리시키거나 고립시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언어교육 과정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언어학습은 종합적이고도 복잡한 인격체를 가진 학습자

5) Gerngross, Günter: Pädagogische Tatsachenforschung (2001), S. 56-57.

6) Bleyhl, Werner: Über die Verstehensmethode. In: Deutsch lernen (1998), S. 214ff.

7) Bleyhle, a.a.O., S. 220.

들로 하여금 언어의 전체를 통째로 - 의미, 억양, 강세, 문장구조 등 -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국어습득 과정이 이에 가장 좋은 모델을 제시한다. 모국어 습득 시 문법을 강조하거나, 일방적으로 한 가지 종류의 단어종류만 우선적으로 가르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모국어와 외국어의 상호관계와 영향력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되어질 수 있겠다. Bleyhl의 이론에 따르면 모국어는 외국어 습득과정에서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는 외국어를 습득하기 전 모국어 쓰기와 읽기가 먼저 이루어져야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모국어에서 먼저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고 그에 맞추어 외국어에서는 언어적 감각이나 창의성을 익힌다. 여기에 모국어와 외국어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놓여있는 것이다.

2. Input의 중요성:

형식강조적인 외국어교육, 직선적이고 단계적인 외국어교육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Bleyhl의 외국어학습 이론은 따라서 수용적 이해력 능력 위주의 교육방법론을 제시한다. 언어적 외형에만 얽매인, 언어교육을 마치 수학기초나 물리공식을 외우도록 강요하며 그러한 능력만을 학습자들로부터 요구하는 (실제로 문법위주의 외국어교육을 받는 학생의 뇌 활동을 관찰해 본 결과 그 것은 학습자가 수학이나 물리를 학습할 때 보이는 그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⁸⁾ 외국어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학습자 전체와 언어전체를 최대한 고려한 Input중심의 외국어교육이다. 언어는 형식적인 기억이나 외우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접적인 사용을 통해서만 학습되어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체감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에 의해 학습되어지는 외국어학습을 위해 Bleyhl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input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⁹⁾ 언어학습자는 충분한 언어적 경험을 해

8) Vgl. Nold, Günter: Die analyse kognitiver Verstehensstrukturen in verschiedenen Tätigkeitsbereichen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In: Theorie und Praxis der Unterrichtsforschung (1996), 167-182.

9) 이에 대한 예로 Bleyhl은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간 독일출신의 미국 국무장관

야 하며 집중적인 언어유형, 언어적 모델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학습대상의 구체성, 시각/청각성 (Anschaulichkeit)과 반복성 등이 강조되는 수업이 다름 아닌 input중심의 수업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시된 언어적 input이란 그 학습대상이 수시로 반복되어짐을 뜻하며, 분명한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손쉬운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서의 미디어를 통한 학습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언어의 수용/이해가 언어생산/사용의 단계보다 분명히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겠으며 (input vor output, Hören vor Sprechen) 언어의 이해 자체가 이미 언어습득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외국어를 습득할 때 무엇보다도 많은 비교대상 (비교거리, 비교자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학습장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input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곧 output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금물임을 역설하고 있다. Input는 output보다 1000배 정도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input이 output로 전환되는 과정을 위해 “독백기간”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일종의 숙성기간은 (Inkubationszeit)¹⁰⁾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주입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화기간”을 충분히 할애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필히 공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야 함을 Bleyhl은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적이고 이해력을 우선시하는 input과정은 처음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듣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읽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수업언어를 목표언어로만 진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입체적 미디어를 통하여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해당 언어를 경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교사는 목표언어사용의 모델이 된다. 이렇듯, 특히 처음 단계에서 듣기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이나 경험, 의사소통이 중시되는 외국어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간의 Interaktion이 중심) 교과서는 부

인 Henry Kissinger의 유명한 일화를 언급한다. Kissinger는 독일식 억양이 강한 영어를 구사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에 반해 그의 형의 영어발음은 본토발음에 더 근접하게 자연스러웠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Kissinger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Well, he likes to listen, I like to talk."

10) Bleyhl: a.a.O., S. 217.

수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언어 사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즉흥성에도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직접 듣고 보고 느낌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Bleyhl은 교과서를 서커스의 줄타기 밑에 놓여있는 안전용 그물의 기능정도로만 여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목표언어를 듣고 그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언어 습득을 확인하며 (언어이해력), 그 다음 단계로는 행동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언어로 옮기게 하여 학습자의 언어능력이 확인하는 (언어능력), 이것이 Bleyhl이 구상하는 외국어학습의 발전과정이다.

4. Baden-Württemberg주의 초등외국어교육

Baden-Württemberg주는 현 초등교육을 미래의 초등학교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된 이유로 인해 초등외국어 교육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Projekt "Schulanfang auf neuen Wegen": Flexibilisierung der Schuleingangsstufe 첫출발의 자유화: 새로운 방법에서의 입학, die Förderung aller Kinder 모든 학생들의 -학습능력 부진아부터 우수아까지 모든 학생들의- 능력향상 촉진, die "Verlässliche Grundschule" 믿을 수 있는 초등학교, eine Fremdsprache 외국어). 즉 독일의 16개 연방주 중 Baden-Württemberg 주가 그 첫 번째로 초등외국어교육의 의무화를 선언한 것이다.

BW주 초등외국어교육의 주요 컨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2001/02 학년부터 470개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준하는 초등외국어교육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 2003/04 학년부터 나머지 초등학교도 이를 시행한다.
- 외국어교육은 1-4학년까지 필수과목으로 개설된다.
- 이로 인해 주당 수업시수는 총 8시간, 학년 별로 2시간씩 확대된다.

- 대상 외국어: 영어/불어- 단, 개별적 외국어 선택 불가능하다.
- 초등학교 학생들의 연령과 초등학교 특성을 고려한 수업이다.
- 학년별 교과과정이 적용된다.
-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할 중등/고등학교 수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숫자로 나타나는 점수는 다른 초등학교 과목과 마찬가지로 3-4학년 부터 적용하되, 단, 이로 인한 (외국어 과목에 한해서) 유급은 불가능하다.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외국어 과목의 대상 외국어는 영어와 불어로 하되 학교 당 한 개의 외국어만을 채택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을 학습 받을 수 있는 곳이 독일에선 유일하게 초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이며, 이는 만일 초등외국어 과목에 한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게 된다면 독일 초등학교 교육방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의 외국어를 일괄되게 교육시키기로 함에 따라 BW주의 초등외국어교육은 또한 학생들의 능력이나 개별성의 차별화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학습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초등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단계에서는 특히 그 내용과 방법이 학습 부진아들도 어려움 없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교과과정 준비작업 시에 <독서부진아연합회>의 사람들이 함께 작업에 동참하였거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도이다.

BW주에는 실제로 1학년부터 외국어교육을 (영어/불어) 실시하여 좋은 경험과 결과를 얻은 초등학교가 이미 약 100개정도 있으며, 결과에 관계 없이 현재 전체의 1/3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약 800 개의 초등학교) 이미 특별활동이나 선택과목으로 외국어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것이 2003/04년도 학년부터는 모든 BW주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의 의무화로 확대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범학교 운영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사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 교과과정의 지속적인 보완과 보충이 필요하다.

- 중등학교의 교과과정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경험의 축적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이루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찰과 평가는 2003/04학년부터 전적으로 실시되는 초등외국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적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외국어 교육은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관찰되고 평가됨으로써 자기개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검토되어지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 외국어 과목의 다른 과목과의 통합 (수학, 미술, 체육, 음악, 사회, 자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 학년구별을 초월하는 외국어교육 (특히 처음 단계에서)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 외국어교육에서의 학생능력별 차별화 (학습 우수아와 부진아의 특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학습자의 능력 평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 교과과정의 현실성 여부

5. 초등외국어교육의 실천적 방법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모국어에서조차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초등외국어교육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고려한 외국어교육이 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 첫 외국어 수업에서는 집중적인 듣기, 들은 것의 이해 그리고 말하기, 더 나아가서 언어적 감각 익히기와 평생개념의 언어학습 능력의 도입, 언어에 대한 인식 배양, 비교를 통한 모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언어감각 발달, 읽기 능력과 철자에 대한 친근감, 타문화에 대한 이해 등에 그 학습목표를 두고 있다. 그 이후 3-4학년에

비로소 상황에 걸맞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추가로 요구되어진다.

학습단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반복적 집중적 듣기, 듣기이해, 따라서 말하기 (모방하기), 말하기, 대화적 표현.

BW주의 초등학교는 초등외국어교육의 실천적 방법론으로 우선 통합교과적 운영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8시간의, 학년 당 2시간, 수업 시수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외국어 수업이 분리되어 45분씩 일주일에 2번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걸쳐 90분의 시간이 골고루 분배되어 다른 과목과 수업에 통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별화와 개별화를 원칙으로 하는 초등교육 전반의 학습목표에 따라서 운영되어진다. 교과과정은 학생에 따라 각기 알맞은 수업의 방식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단 외국어 수업에 할애된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지시하며 가능한 한 2×45분 단위의 수업이 알맞은 분량으로 일주일 전체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이 외국어 학습이 초등학교의 다른 과목에 흡수되어 다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일 15분씩¹¹⁾ 수학 (숫자), 미술 (색상, 재질), 체육 (운동), 음악 (노래, 시, 음률), 자연 (동물) 등의 과목에 영어나 불어가 주제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수업의 방법으로 상황, 주제, 행동 그리고 경험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가장 이상적인 수업의 운영으로 제시하는 것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BW주는 의사소통적 수업진행을 강조한다. 의사소통적 수업은 초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황과 경험위주의 주제가 있는 그리고 또 다른 과목과도 접목이 가능한 주제 (가족, 학교생활, 애완동물, 날씨, 축제, 장난감 등...)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외국어를 친숙한 것에 대한 다른 표현방법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어낸다. 외국어는 낯설거나 이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흥미로워하는

11) Camboni, Marlis: Integration der Fremdsprache. Der integrative Ansatz (2001), S. 26.

상황을 수업에서 (각 해당 과목에서 주제에 따라) 제시하며 이런 상황에서 제시되어진 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저절로) 말을/표현을 하고 싶게 만든다는 데 있다. 주제나 상황설정은 스포링처럼 돌며 각 학년마다 발전적으로 거듭 반복되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첫 단계 초등외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며, 그 의사소통의 성공의 sign으로써 특정한 행동이나 반응이 나타나면 학습목표는 일단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어린 학습자들 특유의 장점을 살린 학습방법과 그들의 언어를 다루는 데 있어 나타나는 순수성, 거침없음이 초등외국어교육에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이다.

셋째로, Input이 강조된 수업모델을 추구한다. Input 중심의 교육은 연령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뛰어난 리듬감과 음악성, 역동성 (몸의 활발한 동적인 운동성) 등을 이용하여 어린 학습자들을 음률과 리듬, 동작과 음악 등을 통해 해당 언어의 바다에 빠지도록 하는데 있다. 물론 이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화듣기, 단막극 듣기, 노래 듣기, 지시사항 듣기, 듣기, 듣기 그리고 또 듣기... 단순한 듣기에서 들은 것의 이해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첫 단계 외국어 수업에서의 원칙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어린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를 습득할 때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할 때 그렇듯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으로 언어적 암호를 풀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생아의 모국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로 들 수 있다: Lallphase, Inkubationszeit etc...). 이것은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진전)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문법을 불필요한 요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수업모델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도 새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담임, 과목담당교사, 팀티칭, 원어민 교사, 기타 미디어¹²⁾ 등을 외국어교육의 인력으로 활용하며 담임이 아닌 다른 과목 담당교사가 목표언어를 지도할 경우 해당 외국어 외에 적어도 다른 과목 한 가지를 더 지도하도록 한다 (예: 음악, 자연, 체육 등). 이는 과목전담초등교원의 원칙

12) Vgl. Reuß, Rita: Einsatz von Multimedia im Fremdsprachenunterricht der Grundschule (2002), S. 50-52.

에 준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등외국어교육을 위해 교사연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1. 교수법과 방법론 교육: 8×3시간 (실제로 수업의 상황을 모델로 1-4학년의 초등외국어 수업의 새로운 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수업자료와 미디어 활용방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며 수업장면을 비디오 녹화한 것을 보여주며 수업준비와 운영을 돕는다.
2. 언어교육: 24회에 한하여 실질적인 어학연수가 실시되며, 그 외에도 방학 연수프로그램 교환연수 등이 준비되어진다.

6. 중등교육과의 연계

BW주는 초등외국어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의 결과와 이후 진학하게 될 학교와의 연계성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이곳에서 진행되어져왔던 초등외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기외국어교육의 실행을 선택함은 곧 중등/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의 변화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auptschule 와 Realschule에서 이루어질 외국어 연계 교육과정에 대하여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자체적으로 복잡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Gymnasium에서 이루어질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분명한 점은 이 곳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외국어교육의 연계적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 외 기타 특수학교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 방침에 따라 독일의 모든 중등과정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는 2001/02학년부터 교과과정이 새로이 개편 및 보충되어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 고려되어진 것은 초등학교에서 조기 습득되어진 외국어 능력의 배려와 이를 토대로 하는 외국어능력의 발전이다.

1) Hauptschule와의 연계성:

초등외국어 영어:

- *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어가 필수 외국어인 학교에 입학
- * 5학년부터 9학년/10학년까지 초등외국어교육에 이은 진척된 영어교육을 받는다.

초등외국어 불어:

- *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어가 필수 외국어인 학교에 입학
- * 5학년부터 9학년/10학년까지 초보단계 영어 교육을 받는다.
- * 5학년부터 선택적으로 특활시간을 이용하여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의 불어수업을 받을 수 있다.

10	Hauptschule	
9	<u>필수외국어: 영어</u>	
8		
7	초등영어에 이은 연계된	불어: 주당 3시간까지
6	영어교육	특별활동 교육으로 선택 가능
5	초급영어	
4	↑	↑
3	초 등	학 교
2	초등외국어	초등외국어
1	영어	불어

2) Realschule와의 연계성:

초등외국어 영어:

- *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어가 필수 외국어인 학교에 입학
- * 5학년부터 초등외국어교육에 연계된 발전된 영어교육을 받는다.
- * 7학년부터 선택필수 과목 중 하나인 불어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 불어는 초보단계이다.

초등외국어 불어:

- *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어가 필수 외국어인 학교에 입학
- *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초보단계 영어교육을 받는다.
- * 5-6학년 때 주 3시간의 불어 bridge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 * 7학년 때 다음의 필수선택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인간과 환경”, “자연과 기술”, “불어”
- * 불어 선택 시 4년의 초등불어와 2년의 bridge코스에 이은 발전된 단계의 불어수업을 받게 된다.
- * 만약 “인간과 환경”이나 “자연과 기술” 중 하나의 필수선택과목을 선택하였을 시엔 필수선택과목인 불어를 추가로 더 선택할 수도 있다. (4년 초등불어, 2년의 bridge코스에 계속되는 다음 단계의 수준)

그 외:

BW주에 있는 Realschule 중 12곳에서는 5학년부터 불어를 필수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런 학교들에 한하여서는 7학년부터 4년간의 초등불어에 연이은 다음단계의 불어교육이 실시되며, 7학년부터는 누구나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선택하여야한다.

R e a l s c h u l e

10	5-10학년 필수외국어: 영어 (초등영어에 연계된 발전된 영어)	선택: 7학년 초급불어 (선택필수 외국어)	필수외국어: 영어 (5학년부터 초급영어)	영어 + 필수 선택과목: 불어 (7년차)	영어 + 필수 선택과목: “인+환” 혹은 “자+기” 7년차 불어 선택가능
9				선택:(5-6학년) 연계된 bridge불어 3 혹은: 연계된 불어수 업(12개 곳 가능)	
8	↑		↑		
7	초등외국어		초등외국어		
6	영어		불어		
5					
4					
3					
2					
1					

3) Gymnasium과의 연계성:

- * 초등외국어에 이은 발전된 단계의 외국어교육이 Gymnasium 5학년부
터 연계 실시되며 그 때 추가적으로 제 2 외국어 교육도 실시된다.

초등외국어 영어:

- * 5학년부터 발전된 단계의 영어교육
- * 5학년 때 추가로 불어교육 실시 (초보단계)
- * 7학년 때 추가로 라틴어 혹은 심화된 자연계열 과정 (외국어: 영어,
불어) 중 한 코스를 선택한다.

초등외국어 불어:

- * 5학년부터 발전된 단계의 불어교육
- * 5학년 때 추가로 초급영어 교육이 실시된다.
- * 7학년 때 추가로 라틴어 혹은 심화된 자연계열 과정 (외국어: 영어,
불어) 중 한 코스를 선택한다.

G y m n a s i u m

13							
12		영어+		불어+			라틴어+
11	영어+	불어+	불어+	영어+	라틴어+	라틴어+	영어+
10	불어+	심화	영어+	심화	영어+	영어+	심화
9	라틴어	자연	라틴어	자연	불어	고대	자연
8		계열		계열		그리스어	계열
7							
6	발전 영어+초급불어		발전불어+초급영어		발전불어+라틴어		
5							
4	초등외국어 영어		초등외국어 불어				
3							
2							
1							

참 고 문 헌

- Lehrplan: Fremdsprachen in der Grundschule. Ergänzung zum Bildungsplan für die Grundschule. Fremdsprachen: Englisch/Französisch. (2001.4.26)
- Bleyhl, Werner: Über die Verstehensmethode. In: DEUTSCH LERNEN (1998), S. 213-227.
- Bleyhl, Werner: Knackpunkte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Zehn intuitive Annahmen. In: Praxis des neusprachlichen Unterrichts (1998), S. 126-138.
- Camboni, Marlis: Integration der Fremdsprache. Der integrative Ansatz (2001), S. 26.
- Gerngross, Günter: Pädagogische Tatsachenforschung (2001), S. 56-57.
- Nold, Günter: Die analyse kognitiver Verstehensstrukturen in verschiedenen Tätigkeitsbereichen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In: Theorie und Praxis der Unterrichtsforschung (1996), 167-182.
- Reuß, Rita: Einsatz von Multimedia im Fremdsprachenunterricht der Grundschule (2002), S. 50-52.
- Sarter, Heidemarie: Fremdsprachen in der Grundschule (2001)